

# 『格致藁』의 ‘往來臨立’에 대한 易學的 고찰

林炳學\*

## 차례

- I. 시작하는 말
- II. 往來臨立의 易學的 의미
  - 1. 易道와 往來臨立
  - 2. 六爻重卦와 往來臨立
- III. 易學的 사유체계와 往來臨立
  - 1. 元亨利貞 四象과 往來臨立
  - 2. 仁禮義智 四德과 往來臨立
  - 3. 君子·小人之道와 往來臨立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格致藁』 제2권 「反誠箴」의 往來臨立을 중심으로 東武의 易學的 사유체계를 고찰한 것이다.

東武가 天命으로 규정한 往來臨立은 易道の 내용인 시간성의 원리와 공간성의 원리를 일체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이다. 天時와 地利로 언급된 往來는 시간성의 원리의 지향작용인 順逆原理와 직접 결부되며, 人謀와 人才로 언급된 臨立은 공간성의 원리를 상징하는 上下와 직접 결부되어 易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往來臨立을 易道の 표상체계인 六爻重卦와 결부시켜보면, 往은 과거를 헤아리는 방향으로 아직 건너가지 않았다는 火水未濟卦(☲☵)에, 來는 미래를 알리는 방향으로 이미 건너왔다는 水火既濟卦(☵☲)에, 臨은 하늘이 아래로 降臨하는 뜻으로 風雷益卦

\* 충남대학교 철학과 시간강사

(☶☵)에, 立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立志하는 것으로 山澤損卦(☶☵)에 각각 배속된다.

또한 易學的 思惟體系인 元亨利貞 四象, 仁禮義智 四德이 往來臨立과 그대로 결부되어, 東武의 四象의 思惟體系가 易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往來臨立으로 밝힌 東武의 사상적 사유체계는 易道의 표상방법인 時間과 空間을 일체적으로 밝혀, 易學의 사유체계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특히 往來臨立이 「反誠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철학계는 물론 한의학계에서도 전혀 연구된 적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東武 李濟馬, 格致藁, 易學, 往來臨立, 四象, 四德.

## I. 시작하는 말

東武 李濟馬(1837~1900)는 『格致藁』를 44세 되던 해(1880년)부터 四象醫學을 집성한 『東醫壽世保元』을 집필하기 직전인 57세(1893년)까지 13년 동안 저술하여, 자신의 철학사상을 체계적으로 완성함과 아울러 四象醫學의 철학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東武의 철학사상을 온전히 담고 있는 『格致藁』는 그 학문 방법과 내용을 철두철미 先秦儒學을 집대성한 孔孟之道에 바탕을 두고, 漢代 이래 내려온 諸子之學과 佛敎를 비판함은 물론이고,<sup>1)</sup> 그 당시 지배적인 사상의 흐름인 성리학의 사유체계를 벗어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2)</sup>

1) 東武는 『格致藁』의 「反誠箴」, 兌箴 下載을 비롯하여, 「儒略」, 天時篇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諸子之學과 佛敎를 비판하고 있다.

2) 林炳學, 「『格致藁』에 나타난 이제마의 易學的 사유체계-학문연원과 四象의 역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제132집, (사)퇴계학연구원, 2012, 187쪽.

『格致藁』는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 「儒略」은 54세에 완성된 것으로 인간존재에 대한 해명의 形而上的 근거가 되는 '事心身物'의 四象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으며, 제2권 「反誠箴」은 57세에 완성된 것으로 『周易』의 八卦를 篇名으로 하여 '往來臨立'을 중심으로 四象의 思惟體系를 논급하고, 제3권 「獨行篇」은 46세에 완성된 知人論으로 四端之心과 鄙薄貪儒之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sup>3)</sup>

그런데 『格致藁』는 그 핵심 용어들이 『周易』을 비롯한 先秦儒學의 經典에서 사용된 뜻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易學의 고찰을 통할 때 비로소 동무의 철학적 사유세계와 四象醫學의 철학적 근거를 밝힐 수 있다.<sup>4)</sup>

東武는 「反誠箴」의 소제목을 '乾箴·兌箴·坤箴·艮箴·離箴·震箴·坎箴·巽箴'이라 하여, 『周易』의 八卦에서 이름을 취하였고,<sup>5)</sup> 또 "形狀과 理致에서 卦象을 취함은 단지 마음속으로 헤아린 견해(臆見)이지만, 그 卦象이 여덟 개가 있음은 진실로 伏羲易의 卦象이 이와 같다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卦의 이름과 뜻이 암암리에 일치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한 것은 실제로 마음속으로 헤아린 견해와 깊은 탐구가 미칠 만한 것이 아니므로 굳이 거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방했다고 말한 것이다."<sup>6)</sup>라고 하여, 마음속으로 헤아린 견해라 하였지만 八卦의 原義를 나름대로 최대한 살려서 象을 취한 것으로<sup>7)</sup> 宋代 易學이 규정하는 先天 伏

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개정증보 四象醫學』, 집문당, 2004, 46~50쪽·박대식 역주, 『사상의학의 인간학 格致藁』, 청계출판사, 2000, 33~40쪽·허훈, 『동무 이제마의 철학사상 - 심성론과 수양론-』, 심산, 2008. 참조.

4) 金滿山, 「周易의 관점에서 본 사상의학원리(2) - 四端論에 관하여 -」, 『東西哲學研究』, 제20집, 한국동서철학회, 154쪽 참조.

5) 『格致藁』, 「反誠箴」, "此箴名義, 依倣易象."

6) 『格致藁』, 「反誠箴」, "形理之取象, 只是臆見而其象有八, 非眞謂伏羲易象如此也, 若夫卦之名義, 暗合. 有異者, 則實非臆見探頭之所及也, 固不可舉論也, 故曰依倣."

7) 지규용 역해, 『동무 격치고 역해』, 도서출판 영림사, 2001, 207쪽.

羲八卦圖의 卦象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하였다.

『周易』에서는 易道의 표상체계에 대하여, “『주역』의 책됨은 넓고 커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天道가 있고 人道가 있고 地道가 있으니, 三才가 모두 兩之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六爻는 다른 것이 아니라 三才之道이다.”<sup>8)</sup>라고 하고, 또 “『주역』의 책됨은 시작에 근원하여 마침을 요약함을 바탕으로 삼고 六爻가 서로 섞여 있음은 오직 시간을 상징하는 物이기 때문이다.”<sup>9)</sup> · “六爻의 움직임은 三極之道이다”<sup>10)</sup>라고 하여, 易道를 표상하는 六爻重卦를 六爻로써 공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三才之道로, 時物로써 시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三極之道로 규정하고 있다.<sup>11)</sup>

또한 易道에 대하여 “易은 逆數이다”<sup>12)</sup>라 하고, “易이라는 것은 象이다”<sup>13)</sup>라 하여, 하나의 易道를 ‘數’와 ‘象’으로 표상된다고 하여, 數理를 통해 시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표상한 것이 三極之道라면, 卦象을 통해 공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표상한 것이 三才之道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周易』을 비롯한 先秦儒學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규정된 논리적 형식이나 단순히 사물의 존재 양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존재방식이자 근원적 존재인 道를 표상하는 범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8) 『周易』, 繫辭下, 제9장,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

9) 『周易』, 繫辭下, 제10장, “易之爲書也 原始要終 以爲質也. 六爻相雜 唯其時物也.”

10) 『周易』, 繫辭上, 제2장,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11) 林炳學, 「繫辭上篇 제5장과 曆數原理」, 『범한철학』, 제45호, 범한철학회, 2008, 29쪽 참조.

12) 『周易』, 說卦, 제3장, “易 逆數也.”

13) 『周易』, 繫辭下, 제3장, “易者 象也.”

14) 『大學』에서는 “物에는 本末이 있고 事에는 終始가 있으니 그 선후하는 바를 알면 도에 가까운 것이다”(經1章,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리라”)라고 하여, 本末이 있는 공간적 입장에서는 ‘物’로, 終始가 있는 시간적 입장의

東武도 「反誠箴」, 「巽箴」의 그림에서 “과거는 地에 있으니 地는 아래에 있다. … 미래는 天에 있으니 天은 위에 있다.”<sup>15)</sup>라고 하여, 과거·미래의 시간과 아래·위의 공간을 결부시켜 易學의 표상체계의 일부분인 太極과 八卦를 논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反誠箴」에서 논급된 往來臨立을 중심으로 『格致藁』에 나타난 동무의 易學的 사유체계를 밝히기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그 易學的 의미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易學의 사유체계인 元亨利貞 四象과 往來臨立, 仁禮義智 四德과 往來臨立, 君子·小人之道와 往來臨立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往來臨立의 易學的 의미

### 1. 易道와 往來臨立

서론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이 易道는 시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표상하는 三極之道와 공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표상하는 三才之道로 표상되기 때문에 '往來臨立'을 시간성의 원리와 공간성의 원리 입장에서 그 易學的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東武는 「反誠箴」 乾箴에서 往來臨立에 대하여 “하늘을 이는 것은 往을 헤아리는 것이고, 땅을 밟는 것은 來를 선택하는 것이고, 문을 나감은 物

---

'事'로 道가 표상됨을 밝히고 있으며, 또 『書經』에서는 “이에 회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공경히 天道에 순응하여 日月星辰을 曆하고 象하여 人時를 공경히 주셨다.”(『堯典』, 乃命羲和하샤 欽若昊天하야 曆象日月星辰하야 敬授人時하시다)라고 하여, 天道를 시간적 측면에서는 曆하고, 공간적 측면에서는 象한다고 하여, 근원적 진리를 시간과 공간으로 표상하고 있다.

15) 『格致藁』, 「反誠箴」, 「巽箴」, “過去在地, 地在下也, …………… 未來在天, 天在上也.”

을 보는 것이고, 잔치를 즐기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sup>16)</sup>라고 하여, 往은 天의 입장에서 지나간 것을 헤아리는 것이고, 來는 地의 입장에서 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反誠箴」 乾箴 下截에서는

“하늘을 이고 往하는 것은 하늘의 때를 고르게 하는 것이고, 땅을 밟고 來하는 것은 땅의 이로우를 고르게 하는 것이고, 문을 나와서 臨하는 것은 사람의 피를 고르게 하는 것이고, 잔치를 즐기고 立하는 것은 사람의 재주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sup>17)</sup>

라고 하였다. 往來臨立을 天時·地利·人謀·人才로 설명하여 往은 天에, 來는 地에, 臨立은 人에 배속하고 있다. 여기서 天時와 地利는 『孟子』에서 인용한 것이고, 人은 人和에 해당되어<sup>18)</sup> 天地人 三才之道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天地人 三才之道는 서로 體用의 관계로 天道가 본체이고 地道가 작용일 때는 地道 속에 人道가 포함되고, 天道가 본체이고 人道가 작용일 때는 人道가 地道를 대표하며, 天地之道가 본체이고 人道가 작용일 때는 天地之道가 人道의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sup>19)</sup>

따라서 ‘往來’가 天地之道로 時間性的의 원리를 위주로 표상한 개념이라면, ‘臨立’은 人道로 空間性的의 원리를 위주로 표상한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면 往來臨立의 易學的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자.

16) 『格致藁』, 「反誠箴」, 乾箴, “戴天料往, 履地擇來, 出門觀物, 遊燕守己.”

17) 『格致藁』, 「反誠箴」, 乾箴 下截, “戴天以往 平均天時, 履地以來 平均地利, 出門以臨 平均人謀, 遊燕以立 平均人才.”

18) 『孟子』, 公孫丑章句下, “孟子 | 曰天時 | 不如地利오 地利 | 不如人和니라.”

19) 易學的 체용원리는 陰陽體用原理로 陰과 陽이 서로 體用的 관계이듯이 天地人 三才之道도 서로 체용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시간과 공간도 체용의 관계로 근원적 입장에서는 시간이 본체가 되고 공간은 작용이 되지만, 현상적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체용의 관계가 된다.

먼저 『周易』에서는 往來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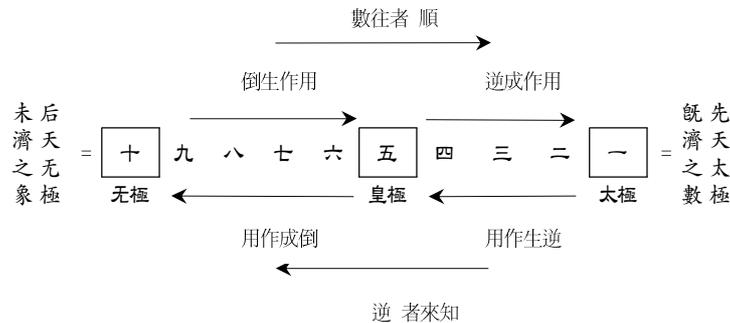
“감(往)을 헤아리는 것은 順이며, 옴(來)을 아는 것은 逆이니, 易道는 逆을 헤아리는 것이다.”<sup>20)</sup>

라고 하여, 지나간 과거를 헤아리는 ‘順’과 다가오는 미래를 아는 ‘逆’이 易道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順과 逆은 時間性的 원리의 지향작용인 順逆原理를<sup>21)</sup> 표상하는 것으로 그와 결합되는 ‘往’과 ‘來’도 바로 시간성의 원리의 順逆作用原理를 상징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 往과 來에 대하여 繫辭上篇에서는 “神으로써 옴을 알고 지혜로써 감을 감추는 것이니”<sup>22)</sup>라고 하여, 神과 지혜로 왕래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또 “가고 옴에 궁하지 않음을 일러서 통함이다.”<sup>23)</sup>라고 하여, 변화

20) 『周易』, 說卦, 제3장, “數往者 順 知來者 逆 是故 易 逆數也”

21) 易學的 시간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柳南相의 「圖書易學的 시간관 서설」(『시간에 관한 연구』, 忠南大 人文科學研究所, 1989.)과 金滿山の 「易學的 時間觀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를 참고 바라며, 時間性的 원리의 지향작용에서 順작용은 未來的 終末性(未來性)의 과거 志向작용을 의미하고, 逆작용은 過去の 開始性(過去性)의 未來 志向作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간성의 원리의 작용성을 그림으로 표상하면 아래와 같다.(柳南相, 위의 논문, 66쪽.)



22) 『周易』, 繫辭上, 제11장, “神以知來 知以藏往”

23) 『周易』, 繫辭上, 제11장, “往來不窮 謂之通”

원리에 통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澤山咸卦(☱☶)에서는 “九四是 바르면 길 하여 후회가 없으니 애태워서 가고 오면 벗이 너의 생각을 좇을 것이다.”<sup>24)</sup>라고 하고, 이를 繫辭下篇 제5장에서는 “『주역』에서 말하기를 애태워서 가고 오면 벗이 너의 생각을 좇을 것이라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려 하겠는가? 천하가 돌아감은 같으나 길은 다르며, 이치는 하나이나 생각은 백가지이니, 천하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려 하겠는가?”<sup>25)</sup>라고 하여, 往來가 마음속에서 易道(시간성의 원리)를 궁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往來’가 현상적 차원에서 가고 오는 의미를 넘어서서 易道인 시간성의 원리의 지향작용인 順逆原理를 상징하는 易學的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臨’과 ‘立’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臨’은 19번째 괘인 地澤臨卦(☱☶)의 괘이름으로 臨卦에서는 “臨은 元亨하고 利貞하니 8월에 이르면 흉이 있다. 단에서 말하기를 …… 正道로써 크게 형통함은 天道이기 때문이다.”<sup>26)</sup>라고 하여, 臨이 正道로써 크게 형통하는 天道와 관계됨을 알 수 있다.

또 繫辭下篇에서는 “또한 우환과 연고에 밝은 것이라 스승의 도움은 없으나 마치 부모님이 내려와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것이니”<sup>27)</sup>라고 하여, 臨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사랑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立’은 重天乾卦(☰☰)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에 나아가 사업을 닦는 것이니 충성과 믿음이 덕에 나아가는 까닭이고 말씀을

24) 『周易』, 澤山咸卦, “九四 貞 吉 悔亡 憧憧往來 朋從爾思.”

25) 『周易』, 繫辭下, 제5장 “易曰憧憧往來 朋從爾思 子曰天下 何思何慮 天下 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 天下 何思何慮”

26) 『周易』, 地澤臨卦, 卦辭 “臨 元亨 利貞 至于八月 有凶 彖曰臨 剛浸而長 說而順 剛中而應 大亨以正 天之道也.”

27) 『周易』, 繫辭上, 제8장, “又明於憂患與故 无有師保 如臨父母”

답아서 그 정성을 세우는 것이 사업에 거쳐하는 것이다.”<sup>28)</sup>라 하고, 重地坤卦(䷁)에서 “군자는 공경으로써 안을 바르게 하고 의리으로써 밖을 방정하게 하여 공경과 의리를 세우니 덕이 외롭지 않는다”<sup>29)</sup>라고 하여, 정성과 공경 그리고 의리를 세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 雷風恒卦(䷟)에서는 “대상에서 말하기를 우레와 바람이 恒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바뀌지 않는 방소를 세운다”<sup>30)</sup>라 하고, 繫辭에서는 “이루어진 德器를 세워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성인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성인이 卦象을 세워 뜻을 다하고”·“강유라는 것은 근본을 세우는 것이고”<sup>31)</sup>라고 하여, 자신의 마음속에서 德·易道·근본 등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으로 天道가 인간에 내재화되는 '降臨'의 의미이며, 立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으로 자신의 본성인 정성과 공경 그리고 의리를 세우는 것이자 자신의 마음속에 聖人之道(뜻)를 세우는 '立志'의 의미라 하겠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往來는 시간성의 원리의 지향작용인 順逆을 의미하고, 臨立은 공간성의 원리를 상징하는 上下와 관계되는 개념으로 구분되지만, 62번째 괘인 雷山小過卦(䷛)에서는

“나르는 새가 남긴 소리가 상이면 마땅하지 않고 下면 마땅한 것은 上으로 향하는 것은 逆이고 下로 향하는 것은 順이다.”<sup>32)</sup>

28) 『周易』, 重天乾卦, 文言 九二爻辭, “子曰君子 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29) 『周易』, 重地坤卦, 文言, “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30) 『周易』, 雷風恒卦, 大象辭, “象曰雷風 恒 君子 以 立不易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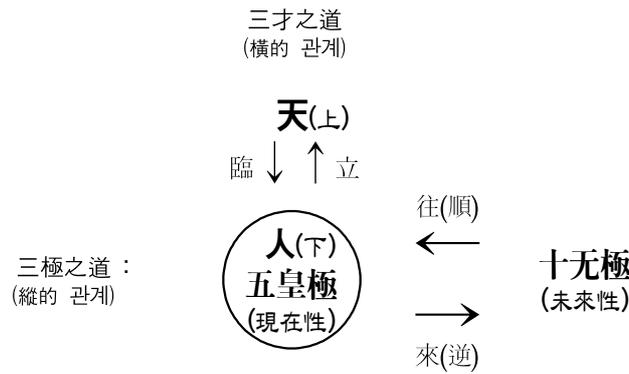
31) 『周易』, 繫辭上, 제10장, “立成器 以爲天下利 莫大乎聖人”·繫辭上, 제2장, “聖人 立象 以盡意”·繫辭下, 제1장, “剛柔者 立本者也”

32) 『周易』, 雷山小過卦, 彖辭, “飛鳥遺之音不宜上宜下大吉 上逆而下順也.”

라고 하여, 逆작용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고, 順작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라 하였으며, 또 山水蒙卦(☶☵)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順이고”<sup>33)</sup>라고 하여, 順逆과 上下를 함께 밝히고 있다. 즉, 시간성의 원리의 지향작용인 順逆을 밝히면서 공간적 의미를 가진 上下에 비유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체적 관계이기 때문으로<sup>34)</sup> 往來臨立은 시간과 공간을 일체적으로 밝힌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往來와 臨立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가고 들어오고, 가고 오는 것은 본체를 세우는 것이고, 굽히고 펴고 거두고 놓는 것은 힘의 얻음이다.”<sup>35)</sup>라고 하여, 往來가 本體의 의미라면 臨立이 작용의 의미임을 논급하고 있다. 즉, 天地之道가 本體라면 人道는 작용이기 때문에 往來臨立의 관계도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往來臨立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3) 『周易』, 山水蒙卦, 彖辭, “上下順也”

34) 시간과 공간은 서로 체용의 관계로 시간적 비유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담아내기도 하고, 공간적 비유를 통해 시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35) 『格致彙』, 『反誠箴』, 巽箴, “出入往來, 體之立也. 屈伸收放, 力之得也.”

## 2. 六爻重卦와 往來臨立

본 절에서는 易道를 표상하고 있는 六爻重卦로 구성된 64괘 가운데 往來臨立의 뜻을 담고 있는 괘는 어떠한 괘인지를 찾아보고, 그 철학적 의미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往來는 시간성의 원리를 지향작용인 順逆과 관계되는 것으로, 韓國易學인 『正易』<sup>36)</sup>에서는 이에 대하여 “龍圖는 未濟의 象으로 倒生逆成하니 先天의 太極이 드러나고 龜書는 既濟의 數로 逆生倒成하니 后天의 無極이 밝혀진다.”<sup>37)</sup>라고 하여, 河圖의 倒生逆成作用 곧 順작용을 표상하는 괘가 火水未濟卦(☵☲)이며, 洛書의 逆生倒成作用 곧 逆작용을 표상하는 괘가 水火既濟卦(☲☵)로 밝히고 있다.<sup>38)</sup> 따라서 往은 火水

36) 『正易』에서는 “易道는 曆數이다.(『大易序』, “易曆也.”)”라고 하여, 先秦儒學에서 밝힌 ‘天之曆數原理’를 易學의 근본명제로 제시하고, 數理체계인 ‘曆數’를 위주로 天道인 時間性의 원리를 표상하는 三極之道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正易』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故 鶴山 李正浩 교수는 “『正易』은 文王·周公·孔子가 『周易』에 묻어 두었던 三極之道를 밝힌 것으로 易道가 大成됨을 보게 된 것이다.”(『周易正義』, 아세아문화사, 1980, 自序)라 하고, 柳承國 교수는 “『正易』은 구한말 유학자 一夫 金恒선생에 의해 저작된 韓國 易學으로 종전의 易學思想과는 다른 획기적인 차원을 개창한 것으로 현대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유교문화연구총서10,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279쪽.)라고 하여, 『正易』이 先秦易學을 계승한 한국 易學임을 밝히고 있다.

또 金장태 교수는 “새로운 易學의 논리를 계발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가장 치밀하고 조직적인 後天開闢사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正易』은 이 시대 한국사상사 내지 한국종교사에서 중대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하여, 『正易』의 사상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한국 현대의 유교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89쪽.)

37) 金恒, 『正易』, 『十五一言』, 第二張, “龍圖 未濟之象而倒生逆成 先天太極 龜書 既濟之數而逆生倒成 后天無極.”

38) 河圖가 未濟의 象이라는 것은 아직 현상화하지 않는 未來性의 세계·十無極을 위주로 표상한 것이라면, 洛書가 既濟의 數라는 것은 사실적 세계의 전개를 헤아려서 표상한 것으로서 그것이 過去性의 세계·一太極을 위주로 표상한 것이다.(柳南

未濟卦(☵☲)와 來는 水火既濟卦(☵☲)와 결부되는 것이다.

往과 결부된 未濟卦는 順방향의 작용을 상징하는 卦로 卦辭에서는 “기체는 형통하니 작은 여우가 거의 건너가다 그 꼬리를 적시는 것이니 이로운 바가 없다.”<sup>39)</sup>라고 하여, 여우가 順방향을 헤아리다가 꼬리를 적신다고 하였고, 大象辭에서는 “대상에서 말하기를 불이 물 위에 있음이 未濟卦이니 군자는 이로써 신중히 사물을 분별하여 방정함에 거처한다.”<sup>40)</sup>라고 하여, 군자가 順방향의 뜻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삼가고 방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爻에서는 “六三是 未濟에 정벌하면 흉하나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 象에서 말하기를 未濟에 정벌함이 흉하다는 것은 時位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1)</sup>라고 하여, 정벌하면 흉한 것은 時位가 아직 三爻이기 때문이고 그래도 대천을 건너감이 이롭다고 하였으며, “六四是 바르면 길하여 후회가 없으니 우레를 써서 귀방을 정벌하여 3년에 대국에 賞이 있는 것이다. 象에서 말하기를 바르면 길하여 후회가 없음은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sup>42)</sup>라고 하여, 뜻을 올바르게 행함이 往의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來와 결부되는 既濟卦는 逆방향의 작용을 상징하는 卦로 卦辭에서는 “기체는 형통하고 貞道가 적게 이로우니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는 혼란하다. …… 끝에 그치면 혼란함은 그 도가 궁하기 때문이다.”<sup>43)</sup>라고 하

相, 『도서역학의 시간관 서설』, 『시간에 관한 연구』,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9, 66쪽.)

39) 『周易』, 水火未濟卦, 卦辭, “未濟 亨 小狐 汔濟 濡其尾 无攸利”

40) 『周易』, 水火未濟卦, 大象辭, “象曰火在水上 未濟 君子 以 慎辨物 居方.”

41) 『周易』, 水火未濟卦, “六三 未濟 征 凶 利涉大川. 象曰 未濟征凶 位不當也.”

42) 『周易』, 水火未濟卦, “九四 貞 吉 悔亡 震用伐鬼方 三年 有賞于大國. 象曰 貞吉悔亡 志行也.”

43) 『周易』, 水火既濟卦, 卦辭, “既濟 亨 小 利貞 初吉 終亂. …… 終止則亂 其道窮也.”

여, 逆방향의 사유와 행위를 하면 마침내는 어지러워지고 그 도가 궁하게 된다고 하였고, 大象辭에서는 “대상에서 말하기를 물이 불 위에 있음이 既濟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방비한다.”<sup>44)</sup>라고 하여, 이미 건너왔으면 환난을 생각하고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각 爻에서는 “九三是 고종이 귀방을 정벌하여 3년에야 능하니 소인은 쓰지 않는다. 상에서 말하기를 3년에야 이김은 고달픈 것이다.”<sup>45)</sup>라고 하여, 先天의 3년 동안은 (逆방향만 추구하여) 고달프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臨立은 공간성의 원리를 표상하는 上下를 위주로 상징하기 때문에 시간성의 원리의 順逆작용을 上下로 표상하고 있는 山澤損卦(䷨)와 風雷益卦(䷗)<sup>46)</sup>와 결부된다고 하겠다.

臨은 六爻重卦에서 이름이 같은 地澤臨卦(䷒)가 있어서 그 괘를 상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공간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내려지는 降臨의 의미이기 때문에 風雷益卦(䷗)와 결부된다.

益卦에서는 “益은 갈 바를 돕이 이로우며 대천을 건넌이 이롭다. 象에서 말하기를 益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것이니 백성들의 기쁨이 경계가 없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주니 그 도가 크게 빛난다. ……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낳아 그 더함에 방소가 없으니 무릇 益卦의 도는 時와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이다.”<sup>47)</sup>라고 하여,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해주는 것으로 하늘의 뜻이 베풀어져 만물이 생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44) 『周易』, 水火既濟卦, 大象辭, “象曰水在火上 既濟 君子 以 思患而豫防之.”

45) 『周易』, 水火既濟卦, “九三 高宗 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象曰 三年克之 憊也.”

46) 柳南相교수는 『주·정역경합편』에서 “損益卦는 表象其河圖洛書之倒逆生成作用原理爲主也요”라고 하여, 損益卦가 河圖洛書原理의 順逆作用를 공간적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柳南相, 『주정역경합편』, 연경원, 2011, 210쪽. : 林炳學, 『易學과 河圖洛書』, (주)한국학술정보, 2008, 206쪽.)

47) 『周易』, 風雷益卦, 卦辭, “益 利有攸往 利涉大川. 象曰 益 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 天施地生 其益 无方. 凡益之道 與時偕行也.”

大象辭에서는 “象에서 말하기를 바람과 우레가 益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선을 보면 옮기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sup>48)</sup>라고 하여, 자신의 본성에 降臨된 뜻을 근거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각 효에서는 “六二是 혹이 더함은 十이 벗하는 것이라 거북도 능히 어기지 않으니 길게 바르면 길하니 왕이 상제에게 享祀를 써더라도 길하다. 象에서 말하기를 혹이 더함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sup>49)</sup>라고 하여, 하늘로부터 더해져 길하다고 하였다.

한편 立은 山澤損卦(☶☵)와 결부되는 것으로 卦辭와 彖辭에서는 “損은 믿음이 있으면 근원적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어 정도가 가하다. 갈 바가 있어서 이로우니 어찌 쓰겠는가? 두 그릇으로 제향할 수 있다. 象에서 말하기를 損은 아래를 덜어서 위에 더하여 그 도를 위로 행하는 것이니 … 어찌 쓰겠는가? 두 그릇으로 제향할 수 있음은 두 그릇이 時에 감응하는 것이며 강함을 덜어서 부드러움에 더해주는 것이 時가 있으니 덜고 더하고 차고 비우는 것이 時와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이다.”<sup>50)</sup>라고 하여, 損은 아래를 덜어서 위에 더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하늘에 올리는 제향의 행위를 통해 드러남을 밝히고 있다.

大象辭에서는 “象에서 말하기를 산 아래에 연못이 있음이 損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성념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sup>51)</sup>라고 하여, 忿心과 慾心を 덜어낸다고 하였으며, 또 각 爻에서도 “六四是 그 병을 덜어내되 하여

48) 『周易』, 風雷益卦, 大象辭, “象曰 風雷益 君子以 見善則遷 有過則改.”

49) 『周易』, 風雷益卦, 六二爻辭, “六二 或益之 十朋之龜 弗克違 永貞 吉 王用享于帝 吉. 象曰 或益之 自外來也.”

50) 『周易』, 山澤損卦, 卦辭, “損 有孚 元吉 无咎 可貞 利有攸往. 曷之用 二簋可用享. 象曰 損 損下益上 其道上行. …… 曷之用二簋可用享 二簋應有時 損剛益柔有時. 損益盈虛 與時偕行.”

51) 『周易』, 山澤損卦, 大象辭, “象曰 山下有澤 損 君子以 懲忿窒欲.”

금 빨리하면 기쁨이 있고 허물이 없다. 象에서 말하기를 그 병을 덜어내니 또한 기쁜 것이다.”<sup>52)</sup>라고 하여, 자신의 허물을 덜어내어야 기쁨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六爻重卦와 往來臨立의 관계를 통해서도 시간과 공간의 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밝히 往來와 결부된 既濟卦와 未濟卦에서는 '방소(方)와 독을 막음(防)'을 언급하여 공간을 통해 시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또 공간성의 원리를 위주로 밝힌 臨立과 결부되는 益卦와 損卦에서는 '갈 바(所往)'와 '옴(來)' 그리고 '時義와 더불어 함께 행한다(與時偕行)'를 언급하고, 또 '時'를 여러 번 말하여 시간을 통해 공간의 세계를 밝히고 있다.

### Ⅲ. 易學의 사유체계와 往來臨立

#### 1. 元亨利貞 四象과 往來臨立

본 절에서는 易學의 사유체계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四象인 元亨利貞과 往來臨立을 고찰하고, 아울러 喜怒哀樂과 往來臨立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역』에서는 四象에 대하여 “『周易』에서 말씀하시기를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太極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고, 八卦는 吉凶을 정하고, 吉凶이 대업을 낳는다.”<sup>53)</sup>라 하고, 또 “『周易』에 四

52) 『周易』, 山澤損卦, 六四爻辭, “六四 損其疾 使過 有喜 无咎. 象曰 損其疾 亦可喜也.”

53) 『周易』, 繫辭上, 제11장,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 生八卦 八卦 定吉凶 吉凶 生大業”

象이 있는 것은 (道를) 보이기 위한 까닭이다.”<sup>54)</sup>라고 하여, 四象이 易道를 드러나는 作用原理임을 밝히고 있다.

또 64괘를 대표하며 易道를 집약하고 있는 重天乾卦(☰)와 重地坤卦(☷)에서도 “乾은 元코 亨코 利코 貞이니라”<sup>55)</sup>이라 하고, “坤은 元코 亨코 利코 牝馬之貞이니라”<sup>56)</sup>이라 하여, 乾·坤을 본체로 하여 元亨利貞 四象으로 작용됨을 밝히고 있다.

동무는 「反誠箴」 乾箴 下截에서

“道라는 것은 天命의 道이니 天命의 道가 어찌 잠시라도 이것에서 떨어지겠는가? 德이라는 것은 人성의 덕이니 人성의 덕이 어찌 넘어지는 사이에도 이것에 기필하지 않겠는가? …… 가는 데는 반드시 슬픔이 있고, 오는 데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고, 임하는 데는 반드시 성냄이 있고, 세우는 데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喜怒哀樂은 人性이고, 往來臨立은 天命이다.”<sup>57)</sup>

라고 하여, 『中庸』의 첫 문장을<sup>58)</sup> 인용하여 註解하면서 ‘往來臨立은 天命이다’라 하고, ‘喜怒哀樂은 人性이고’라 하여, 往來臨立과 喜怒哀樂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往來臨立은 하늘의 이치가 드러나는 天命이며, 喜怒哀樂은 인간의 性情으로 규정한 것이다.

54) 『周易』, 繫辭上, 제11장, “易有四象 所以示也”

55) 『周易』, 重天乾卦, 卦辭.

56) 『周易』, 重地坤卦, 卦辭.

57) 『格致藁』, 「反誠箴」, 乾箴 下截, “道也者 天命之道也, 天命之道 孰可須臾離於斯乎, 德也者 人性之德也, 人性之德 何不顛沛必於是乎, ……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立臨 天命也.”

58) 『中庸』, 제1장, “天命之謂性이오 率性之謂道 | 오 修道之謂教 | 니라. 道也者는 不可須臾離也 | 니 可離면 非道也 | 라 是故로 君子는 戒愼乎其所不睹하며 恐懼乎其所不聞이 니라. 莫見乎隱이며 莫顯乎微니 故로 君子는 慎其獨也 | 니라.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오 發而皆中節을 謂之和 | 니 中也者는 天下之大本也 | 오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 | 니라. 致中和 | 면 天地 | 位焉하며 萬物이 育焉이 니라.”

또 이어서 往來臨立과 喜怒哀樂에 대하여, '가고 오고 서고 임하는 命 과 오지도 가지도 않고 서지 않고 임하지 않는 命이 모두 天命이며, 喜怒哀樂이 발할 때와 발하지 않았을 때 모두 性情<sup>59)</sup>이라 하여, 『孟子』 盡心章句上에서 밝힌 “天命 아닌 것이 없으나 순응하여 그 正道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命을 아는 사람은 높은 담장의 아래에 서지 않는 다.”<sup>60)</sup>에 근거를 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 순간이 모두 하늘의 뜻이 드러난 天命임으로 순응하여 그 正道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함을 밝히고 있다.

먼저 往來臨立을 天命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주역』의 25번째 卦인 天雷无妄卦(䷘)에서는 “无妄은 元亨하고 利貞이니 그 정도가 아니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갈 바가 있음이 이롭지 않다. 象에서 말하기를 …… 正道로써 크게 형통함은 天命이다.”<sup>61)</sup>라고 하여, 卦辭에서 말한 元亨利貞 四象을 彖辭에서는 大亨以正으로 풀이하면서 이것을 天命이라고 하였다.

또 「反誠箴」에서 “하늘을 이고 往하는 것은 하늘의 때를 고르게 하는 것이고, 땅을 밟고 來하는 것은 땅의 이로움을 고르게 하는 것이고, 문을 나와서 臨하는 것은 사람의 피를 고르게 하는 것이고, 잔치를 즐기고 立하는 것은 사람의 재주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sup>62)</sup>라고 하여, 往來臨立을 天時·地利·人謀·人才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元亨利貞의 四象과 往來臨立을 모두 天命이라 하고, 往來臨立을

59) 『格致藁』, 「反誠箴」, 乾箴 下截, “既有來往立臨之命則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已發之性則亦自有喜怒哀樂未發之性也 不來往不立臨之命 豈非處獨之命乎 獨之所性 孰如戒慎恐懼漸次以中乎.”

60) 『孟子』, 「盡心章句上」, “孟子 | 曰莫非命也 | 나 順受其正이니라. 是故로 知命者는 不立乎巖墻之下하나니라.”

61) 『周易』, 天雷无妄卦, 卦辭, “无妄 元亨 利貞 其匪正 有眚 不利有攸往. 象曰 无妄 剛自外來而爲主於內. …… 大亨以正 天之命也.”

62) 『格致藁』, 「反誠箴」, 乾箴 下截, “戴天以往 平均天時, 履地以來 平均地利, 出門以臨 平均人謀, 遊燕以立 平均人才.”

天地人 三才之道로 논급하여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元亨利貞을 天地人 三才之道로 이해하면, 元은 地에, 亨·利는 人에, 貞은 天에 각각 배속되고, 六爻重卦에서는 地道를 상징하는 初爻는 元, 人道를 상징하는 三·四爻는 利와 亨, 天道를 상징하는 上爻는 貞에 각각 배속되어,<sup>63)</sup> 元과 來, 亨과 臨, 利와 立, 貞과 往이 각각 결부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反誠箴」에 나타난 往來臨立의 四象의 사유체계와 易學의 四象原理가 如合符節하는 관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용문에서 ‘가는 데는 반드시 슬픔이 있고, 오는 데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고, 임하는 데는 반드시 성냄이 있고, 세우는 데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고 하여, 往來臨立과 喜怒哀樂의 관계에서는 往과 哀, 來와 樂, 臨과 怒, 立과 喜가 각각 결부됨을 밝히고 있다.

또 喜怒哀樂은 人性의 德이 드러나는 性情으로 往來臨立의 사이에서 節度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天命으로 주어진 往來臨立의 사이에서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적중하는 행동을 해야 함을 논급하고 있다.<sup>64)</sup>

63) 六爻重卦와 三才之道 그리고 元亨利貞 四象, 仁禮義智 四德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柳南相, 「正易思想의 根本問題」, 『論文集』,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제7권 제2호, 1980, 244쪽 참조.)

三才	六爻重卦	四象	四德	性命
天	上九 	貞	智	性
	九五 			
人	九四 	亨	禮	命
	九三 			
地	九二 	利	義	命
	初九 			
		元	仁	性

64) 『格致叢』, 「反誠箴」, 乾箴 下載, “是故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而有節不節也, 戒愼恐懼者, 不來往不立臨時, 自己獨得之性而有中不中也.”

## 2. 仁禮義智 四德과 往來臨立

다음으로 易學의 인간 본성에 관한 사유체계인 仁禮義智 四德과 往來臨立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重天乾卦(☰) 文言에서는 “文言에서 말씀하기를 元은 善의 어른이다. 亨은 아름다운 모임이다. 利는 義의 조화이다. 貞은 事의 根幹이다. 君子는 仁을 체득하여 족히 다른 사람의 어른이 된다. 아름다운 모임이 족히 禮에 습한다. 萬物을 이롭게 함이 족히 義에 조화된다. 바르고 견고하니 족히 事의 근간이 된다.”<sup>65)</sup>라고 하여, 天道 四象인 元亨利貞을 인간 本性인 仁禮義智 四德과 직접 결부시켜 인간 존재의 해명에도 四象의 사유체계로 밝히고 있다.

또 인간 本性은 性命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仁禮義智 四德에서 仁과 智가 性이 되고, 禮와 義는 命이 됨으로 仁性和 智성이 體가 되어 禮와 義의 작용으로 드러나게 된다. 四德에서 仁과 禮가 체용의 관계로 자신의 마음을 완성시키는 德이라며, 智와 義도 체용의 관계로 사물을 다스리는 德이라 하겠다.<sup>66)</sup>

東武는 「反誠箴」 乾箴에서 “하늘을 이는 것은 往을 헤아리는 것이고, 땅을 밟는 것은 來를 선택하는 것이고, 문을 나감은 物을 보는 것이고, 잔치를 즐기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sup>67)</sup>라고 하여, 往來를 언급하고 臨立에 대해서는 문을 나가는 사물(物)과 잔치를 즐기는 사람(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出門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義와, 잔치를 즐

65) 『周易』, 重天乾卦, 文言, “文言曰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 體仁 足以長人 嘉會 足以合禮 利物 足以和義 貞固 足以幹事”

66) 『中庸』, 제25장, “誠者는 非自成己而也 | 라 所以成物也 | 니 成己는 仁也 | 오 成物은 智也 | 니 成之德也 | 라 合內外之道也 | 니”

『書經』, 商書 中虺之誥, “以義制事하시고 以禮制心하시라”

67) 『格致藁』, 「反誠箴」, 乾箴, “戴天料往, 履地擇來, 出門觀物, 遊燕守己.”

기는 것은 내면적 즐거움이기 때문에 禮와 결부된다.<sup>68)</sup>

仁禮義智 四德과 往來臨立의 관계에서 天地之道인 往來에 근거하여 臨立의 人道가 작용으로 드러나는 구조는 仁智之性에 근거하여 禮義之命으로 작용하는 구조와 동일하며, 또 乾箴에서는

“지혜가 가는 것에 천하가 슬퍼하지 않고, 어둠이 오는 것에 천하가 모두 즐거워하고, 예가 임하는 것에 천하가 성내지 않고, 의가 세워지는 것에 천하가 모두 기뻐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하니 모든 생각이 한가지로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뜻하니 모든 뜻이 한가지로 어질고, 예의바른 사람이 염려하니 모든 염려가 한가지로 예의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마음을 쓰니 모든 마음이 한가지로 의롭다.”<sup>69)</sup>

라고 하여,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智는 슬픔으로 往과, 仁은 즐거움으로 來와, 禮는 성냄으로 臨과, 義는 기쁨으로 立과 각각 결부되는 것이다.

이어서 “智가 올바르게 드러난 意가 가는 바에 世上 사람들이 슬퍼하지 아니하며, 仁이 올바르게 드러난 志가 오는 바에 世上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禮가 올바르게 드러난 慮가 임하는 바에 世上 사람들이 노하지 아니하며, 義가 올바르게 드러난 膽이 서는 바에 世上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느니라.”<sup>70)</sup>라고 하여, 往來臨立과 仁禮義智 四德, 志膽慮意 物四端

68) 이는 重地坤卦 文言에서는 “敬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義로써 밖을 바르게 하면 敬과 義가 바르게 서고 德이 외롭지 않는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文言 六二 爻辭.)라고 하여, 내면의 세계로 주체화시키는 것은 禮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義에 근거하고 있다.

69) 『格致藁』, 「反誠箴」, 乾箴, “智之所往 天下不哀, 仁之所來 天下皆樂, 禮之所臨 天下不怒, 義之所立 天下皆喜. 智者爲意 萬意同智, 仁者爲志 萬志同仁, 禮者爲慮 萬慮同禮, 義者爲膽 萬膽同義.”

70) 『格致藁』, 「反誠箴」, 乾箴, “此意所往 萬意不哀, 此志所來 萬志皆樂, 此慮所臨 萬慮不怒, 此膽所立 萬膽皆喜.”

그리고 哀怒喜樂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동무가 往來臨立을 중심으로 智·往·意·哀, 仁·來·志·樂, 禮·臨·慮·怒, 義·立·膽·喜를 각각 결부시킨 자신의 四象의 사유체계가 易學의 四象原理와 四德原理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四象과 往來臨立, 四德과 往來臨立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往	來	臨	立
四象	貞	元	亨	利
四德	智	仁	禮	義
四情	哀	樂	怒	喜
『格致藁』 四象	事	物	心	身
『格致藁』 物四端	意	志	慮	膽

### 3. 君子·小人之道와 往來臨立

본 절에서는 易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인 君子·小人之道와 往來臨立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周易』에서 君子는 聖인이 밝힌 易道를 근거로 자신의 본성으로 주어진 仁禮義智 四德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면,<sup>71)</sup> 小人은 아직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한 존재로 주어진 使命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라 하겠다.

繫辭下篇에서는 君子와 小人에 대하여 “그 덕을 행하는 무엇인가? 陽은

71) 『周易』, 重天乾卦, 文言, “君子 行此四德者 故曰乾元亨利貞”

하나의 임금과 두 백성이니 군자의 도이고, 陰은 두 임금과 한 백성이니 소인의 도이다.”<sup>72)</sup>라고 하여, 君子之道와 小人之道는 상대적 관계이지만, 그 德을 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지 대립적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東武는 「反誠箴」 乾箴 下截에서

“하늘이 때를 주지 않으면 궁핍하니 또한 무엇을 원망하고, 하늘이 씨를 주지 않으면 곤궁하니 또한 무엇을 원망하고, 하늘이 재주를 주지 않으면 비천하니 또한 무엇을 원망하며, 하늘이 이로움을 주지 않으면 가난하니 또한 무엇을 원망하리오.”<sup>73)</sup>

라고 하여, 곤궁하고 빈천해도 ‘不怨天 不尤人’<sup>74)</sup>하는 君子의 자세를 (天)時인 往, (地)利인 來 그리고 (人)謀·(人)才인 臨立으로 설명하고 있다. 往來臨立은 군자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갈 수 있으면 홀로 가도 이룰 수 있고, 올 수 있으면 홀로 와도 자득할 수 있고, 臨할 수 있으면 홀로 臨해도 통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으면 홀로 세워도 닦을 수 있다.”<sup>75)</sup>라고 하여,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군자의 삶에<sup>76)</sup> 있어서 성공은 하늘의 일이고, 얻음은 自得하는 것이고, 통합은 感通하는 것이고, 닦음은 修身임을 밝히고 있다.

또 군자는 天時를 살피고, 權道를 행하고, 時位와 義理에 맞는 행동을 하는 존재임을 설명하고,<sup>77)</sup> 이러한 군자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기만하지

72) 『周易』, 繫辭下, 제3장, “其德行 何也 陽 一君而二民 君子之道也 陰 二君而一民 小人之道也.”

73) 『格致藁』, 「反誠箴」, 乾箴 下截, “天不與時 窮亦何怨, 天不與謀 困亦何怨, 天不與才 賤亦何怨, 天不與利 貧亦何怨.”

74) 『論語』, 憲問, “子 | 曰不怨天하며 不尤人이오 下學而上達하노니 知我者는 其天乎인저.”

75) 『格致藁』, 「反誠箴」, 乾箴, “可以往也 獨往能成, 可以來也 獨來能得, 可以臨也 獨臨能通, 可以立也 獨立能修.”

76) 『中庸』, 제1장, “君子는 慎其獨也 | 니라.”, 『大學』, 傳6장, “君子는 必慎其獨也 | 니라.”

77) 『格致藁』, 「反誠箴」, 乾箴, “時之所在 必察其時, 權之所在 必察其權, 位之所在 必察其

않고(無誣)·모함하지 않고(無誣)·속이지 않고(無詒)·거짓말하지 않게(無譎) 된다고 하였다.<sup>78)</sup>

또 이어서 “갈 만하면 혼자 가도 미혹되지 않고, 올 만하면 혼자 와도 넘어지지 않고, 임할 만하면 혼자 임해도 어지럽지 않고, 설 만하면 혼자 서도 두렵지 않다. 혼자 가도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의논하지 않기 때문이고, 혼자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고, 혼자 임해도 어지럽지 않는다는 것은 가볍게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혼자 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구차하게 힘쓰기 않기 때문이다.”<sup>79)</sup> 라고 하여, 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使命을 알기 때문에 澤風大過卦(䷛)에서 밝힌 “연못에 나무가 없는 것인 大過卦이니 君子가 이로써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숨어서 근심하지 않는다.”<sup>80)</sup>와 같이 때가 아니면 홀로 그 뜻을 세우는 존재라 하였다.

그리고 군자의 마음에 대하여

“정성이 가는 곳에 천하가 근심이 없고, 정성이 오는 곳에 천하가 근심이 없고, 정성이 臨하는 곳에 천하가 근심이 없고, 정성이 立하는 곳에 천하가 근심이 없다.

정성이라는 것이 意가 되면 속임과 교만이 없고, 정성이라는 것이 慮가 되면 駘와 矜이 없고, 정성이라는 것이 膽이 되면 譎과 자랑도 없고, 정성이라는 것이 志가 되면 속임과 사치가 없다.”<sup>81)</sup>

位, 利之所在 必察其利.”

78) 『格致藁』, 「反誠箴」, 乾箴, “獨往能成 不爲誣也, 獨來能得 不爲誣也, 獨臨能通 不爲詒也, 獨立能修 不爲譎也.”

79) 『格致藁』, 「反誠箴」, 乾箴, “可以往也 獨往不迷, 可以來也 獨來不跌, 可以臨也 獨臨不亂, 可以立也 獨立不懼. 獨往不迷 不妄議也, 獨來不跌 不浪綏也, 獨臨不亂 不輕謀也, 獨立不懼 不苟勉也.”

80) 『周易』, 澤風大過卦, 大象辭, “象曰 澤滅木 大過 君子以 獨立不懼 遯世无悶.”

81) 『格致藁』, 「反誠箴」, 乾箴, “誠之所往 天下無憂, 誠之所來 天下無憂, 誠之所臨 天下無

라고 하여, 정성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誠에 대하여, 『周易』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의 덕은 正中한 것이니, 떳떳한 말을 믿고 떳떳한 행동을 삼가하여 간사함을 막아서 그 정성을 보존하고 세상을 선하게 하지만 자랑하지 않으니 덕이 널리 감화 되는 것이다.”<sup>82)</sup>라고 하여, ‘庸言’과 ‘庸行’의 근거가 ‘誠’이라 하였으며, 『中庸』에서도 “誠은 物의 마침과 시작이니 誠이 아니면 물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誠을 귀하게 여긴다. 誠은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물을 이루는 것이니 자기를 이룸은 仁이고, 물을 이룸은 知이다. 본성의 덕이니 내외를 合德시키는 도이다.”<sup>83)</sup>라고 하여, 군자가 본성인 仁禮義智 四德이 정성으로 귀결됨을 밝히고 있다.

한편 동무는 小人之道과 往來臨立에 대하여

“하나의 기만이 가는 속에 백 개의 기만이 일어나고, 하나의 모함이 오는 곳에 백 개의 모함이 일어나고, 하나의 속임이 임하는 곳에 백 개의 속임이 일어나고, 하나의 거짓말이 서는 곳에 백 개의 거짓말이 일어난다.”<sup>84)</sup>

라고 하여, 小人은 往來臨立의 天命을 깨우치지 못해 기만하고·모함하고·속이고·거짓말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 往來臨立하는 곳 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기만하고·모함하고·속이고·거짓말하게 되는

憂, 誠之所立 天下無憂. 誠者爲意 無誣無驕, 誠者爲慮 無詒無矜, 誠者爲膽 無譎無伐, 誠者爲志 無誣無夸.”

82) 『周易』, 重天乾卦, 文言,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83) 『中庸』, 제25章, “誠者는 物之終始니 不誠이면 無物이니 是故로 君子는 誠之爲 貴니라. 誠者는 非自成己而已也 | 라 所以成物也 | 니 成己는 仁也 | 오 成物은 知也 | 니 性之德也 | 라 合內外之道也 | 니”

84) 『格致叢』, 「反誠箴」, 乾箴, “一誣所往 百誣起焉. 一誣所來 百誣起焉. 一詒所臨 百詒起焉. 一譎所立 百譎起焉.”

것이다.<sup>85)</sup>

즉,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使命을 알아 時義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소인의 행동은 자기가 갈 바를 행하지 않고 와야 할 바에 오지 않으며, 임해야 할 바에 임하지 않고, 설 바에 서지 않아 時義에 어긋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難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인의 마음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이 가는 바에 혼흔히<sup>86)</sup> 가는 것이 있고, 사치하는 마음이 오는 바에 혼흔히 오는 것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는 바에 혼흔히 임하는 것이 있고, 자랑하는 마음이 세우는 바에 혼흔히 세우는 것이 있다.”<sup>87)</sup>

라고 하여, 교만한 마음·사치하는 마음·불쌍히 여기는 마음·자랑하는 마음이 小人의 마음임을 밝히고 있다. 小人은 마음이 가는 바에 欣然히 往來臨立한다는 것은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의미이다. 즉, 小人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때의 이익이나 분위기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또한 小人은 “가는 차례를 보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고, 오는 차례를 보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고, 임하는 차례를 보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고, 서는 차례를 보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는다.”<sup>88)</sup>라고 하여, 君子가 往來臨

85) 『格致藁』, 「反誠箴」, 乾箴, “誣人所往 誣必爭誣, 誣人所來 誣必爭誣, 詒人所臨 詒必爭詒, 譎人所立 譎必爭譎. 以若所往 行若所往, 以若所來 行若所來, 以若所臨 行若所臨, 以若所立 行若所立.”

86) 欣然(欣欣) 본래 뜻은 ‘기뻐하는 모양’인데, 여기에서는 정성스럽고 조심스럽지 못한 모양을 뜻한다.(金滿山, 『格致藁』 註解, 강의록 참조.)

87) 『格致藁』, 「反誠箴」, 乾箴, “驕心所往 欣然有往, 夸心所來 欣然有來, 矜心所臨 欣然有臨, 伐心所立 欣然有立.”

88) 『格致藁』, 「反誠箴」, 乾箴, “第往觀之 不必欣然, 第來觀之 不必欣然, 第臨觀之 不必欣然, 第立觀之 不必欣然.”

立의 天命에 순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논급하고 있다.

이러한 小人의 행동과 마음도 “반성하고 구해야 오고 갈 수 있으며, 생각하고 자득해야 세우고 임할 수 있다.”<sup>89)</sup>라고 하여,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구하고, 근원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통해 자득하여 往來臨立의 天命을 깨닫는다면 君子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존재임을 밝혀, 君子와 小人이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易學의 입장에서 「反誠箴」의 往來臨立을 연구하는 것은 『格致藁』에 나타난 東武의 四象의 사유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됨을 알 수 있다.

東武가 天命으로 규정한 往來臨立은 易道의 내용인 시간성의 원리와 공간성의 원리를 일체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으로 易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天時와 地利로 언급된 往來는 시간성의 원리의 지향작용인 順逆原理와 직접 결부되며, 人謀와 人才로 언급된 臨立은 공간성의 원리를 상징하는 上下와 직접 결부되는 것이다.

또 往來臨立을 易道의 표상체계인 六爻重卦와 결부시켜보면, 往은 과거를 헤아리는 방향으로 아직 건너가지 않았다는 火水未濟卦(☵☲)에, 來는 미래를 알리는 방향으로 이미 건너왔다는 水火既濟卦(☲☵)에, 臨은 하늘이 아래로 降臨하는 뜻으로 風雷益卦(☳☴)에, 立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立志하

89) 『格致藁』, 「反誠箴」, 乾箴, “反而求之 可以來往, 思而得之 可以立臨.”

는 것으로 山澤損卦(☱☵)에 각각 배속된다.

또한 易學의 사유체계인 元亨利貞 四象, 仁禮義智 四德이 往來臨立과 그대로 결부되어, 동무의 四象의 사유체계가 易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往來臨立으로 밝힌 동무의 사상적 사유체계는 易道의 표상방법인 時間과 空間을 일체적으로 밝혀, 易學의 사유체계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동무가 『格致藁』 제2권을 「反誠箴」으로 이름 한 것은 '인간은 詐心이 무궁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성에 되돌아가서 스스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sup>90)</sup>하고, 이 詐心을 행하지 않고 反誠하여 학문을 하는 방법으로는 『孟子』의 求放心을, 그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詐心을 이기는 방법으로는 『論語』의 克己復禮를 언급하고 있다.<sup>91)</sup>

「反誠箴」에서 往來臨立을 天命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은, 후학들에게 天命으로 주어진 往來臨立의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君子로 살아갈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格致藁』 「反誠箴」의 첫 제목인 '乾箴'이 往來臨立으로 시작하는 등 「反誠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철학계는 물론 한의학계에서도 전혀 연구된 적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90) 『格致藁』, 「反誠箴」, “篇名反誠 何謂耶, …… 詐心無窮, …… 不得已 反於誠而自警也.”

91) 『格致藁』, 「反誠箴」, “未及行詐而反誠則學問也,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凡人心中, …… 故行詐也, …… 此之謂克己復禮也.”

## 【 참고문헌 】

- 『周易』. 『書經』. 『論語』. 『大學』. 『中庸』. 『孟子』.  
金恒, 『正易』.  
李濟馬, 『格致藁』.  
\_\_\_\_\_, 『東醫壽世保元』.  
김장태, 『한국현대의 유교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柳南相, 『周·正易經合編』, 도서출판 연경원, 2011.  
柳承國,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유교문화연구총서10, 성균관대 출판부, 2008.  
박대식 역주, 『사상의학의 인간학 格致藁』, 청계출판사, 2000.  
李乙浩, 『韓國改新儒學史試論』, 박영사, 1980.  
李正浩, 『周易正義』, 아세아문화사, 1980.  
林炳學, 『易學과 河圖洛書』, (주)한국학술정보, 200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개정증보 四象醫學』, 집문당, 2004.  
池圭鎔, 『동무 격치고 역해』, 도서출판 영림사, 2001.  
허 훈, 『동무 이제마의 철학사상 - 심성론과 수양론』, 심산, 2008.  
金滿山, 『易學의 時間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周易」의 관점에서 본 四象醫學原理(2) - 四端論에 관하여 -』, 『동서철학 연구』, 제2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0, 154쪽.  
柳南相, 『도서역학의 시간관 서설』, 『시간에 관한 연구』, 忠南大 人文科學研究所, 1989, 66쪽.  
\_\_\_\_\_, 『正易思想의 근본문제』, 『논문집』, 제7권 제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0, 244쪽.  
林炳學, 『계사상편 제5장과 역수원리』, 『범한철학』, 제45집, 범한철학회, 2007, 29쪽.  
\_\_\_\_\_, 『「格致藁」에 나타난 이제마의 易學의 사유체계(1) - 학문 연원과 四象의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 『퇴계학보』, 제132집, (사)퇴계학연구원, 2012, 187쪽.  
金滿山, 『格致藁』註解 (미출판).

Abstract

## A study on WangLaiImLib of *Gyeokchigo* as I-Ching

Lim, Byeong-Hak

This article studied Dong-mu's thinking system about I-Ching in Chapter 2 *Gyeokchigo* WangLaiImLib of 'Bansungzam'.

Dong-moo regulated WangLaiImLib to God's will. WangLaiImLib included a principle of time and a principle of space that is I-Ching's contents. That is relevant to I-Ching directly.

WangLai is associated directly with the principle of Soonyiek(順逆) that is time principle as it is mentioned time and vantage ground. ImLib is associated directly with the upper and lower sides that symbolizes principles of space as it is mentioned a resourceful man(人謀) and talented man(人才).

And WangLaiImLib is associated with Hexagrams of I-Ching that is I-Ching's representation system.

Wang means Before completion(水火未濟卦·☵☲) that not went over yet. Lai means After completion(水火既濟卦·☲☵) that went over already. Im is Increase(風雷益卦·☳☴) that gangim(降臨), the sky down offer. Lib is Decrease(山澤損卦·☶☱) human beings towards the sky.

Also, I-Ching's representation system, Sasang(四象) and four virtue(四德) is directly connected WangLaiImLib.

Therefore Dong-moo's Sasang typology is based on I-Ching. In other words, WangLaiImLib clarified the time and the space totally, that are I-Ching's representation method as Dong-moo's Sasang typology.

Meanwhile, WangLaiImLib is the most essential content of 'Bansungzam'. It is have not been studied philosophic world and even in the Oriental medicine world at all. From these points, this paper has meansomething.

Key Word

Tongmu Lee Jea-Ma, *Kogchigo*, I-Ching, WangLailmLib(往來臨立), Sasang(四象), four virtue(四德).

- 논문투고일 : 2012.12.26.    심사완료일 : 2013.2.7.    게재결정일 : 2013.2.13.